



# 서울고등법원

## 제 16 민사부

### 화해권고결정

사 건 2014나12609 부당이득금반환  
 원고, 피항소인 별지 1 '원고 표시' 기재와 같다.  
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로고스  
 담당변호사 김용호, 임수식, 진종한, 한혜진  
 피고, 항소인 별지 2 '피고 표시' 기재와 같다.  
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 
 담당변호사 김동철, 강신묵, 강찬우, 김경호, 김성익, 강종범, 도현  
 정, 이옥경  
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19. 선고 2011가합112587 판결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#### 결정사항

1.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#### 청구의 표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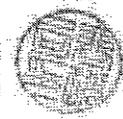


에 따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대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므로, 사실상 비용의 부담주체가 고객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약관에 해당하고, 이는 금융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의 "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"으로 무효이다.

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부담조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부대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, 그로 인하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014. 8. 11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배      광      국



            판사      김      유      진



            판사      최      한      순

